

<2010년 9월 1일 수요일말씀>

매일 읽어요^^~

생각하고 보아야 보고 알 수 있다

본 문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24장 32-36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생각을 집중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귀한 이유는 뭘까요?

내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사
람들의 말은 그때그때 변하지 않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주일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이번 주일말씀에 말하기를 모든 일
들은 마치 시계 ▲▲같이 조금씩 천
천히 진행되기에, 진행되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계절의 때는 ▲▲를 보면 알고, 하
늘의 때인 나의 재림의 때와 세상 말
세의 때는 세상에 ▲▲로 알 수 있다.

땅에 속한 징조란, 지진·홍수·태
풍 등 여러 재난들이라고 말했다. 나
에게 속한 하늘의 징조란, 세상에 나
의 때를 알려 세상 이 끝에서 저 끝
까지 모여들게 하고 사랑의 신부로
단장시켜 나 예수를 맞게 하기 위해
나의 재림을 가르치고 외치는 각종
표적과 징조들이다. 이런 징조들이 일
어나는 것을 보면 말세임을 알아라.

어떤 일들이 천천히 오고 천천히

진행되니 눈으로 봐도 안 보여 모른
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자세히
보고 정신을 집중하여 살피고 깨달으
려 하면 모두 다 알 수 있다.

가령 어떤 자가 너에게서 50m 떨
어져 있다가 천천히 다가온다고 하자.
눈으로 보고 느껴지지 않아도 시간마
다 거리를 재 보면 알 것이 아니겠느
냐. 눈으로 보는 것만 표준하지 말고
자로 재 보고 여러 가지로 철저히 확
인하면 알게 된다.

나의 재림의 경우에는 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자로 재는 것과 같다. 너
희는 나의 역사를 배우고, 지난날 나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행한
일을 찾아보아라.

큰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이유는?

어떤 일들이 아무리 크게 표가 나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그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면 전혀 알 수
가 없다.

가령 시장에 가기 전에 어떤 물건
을 꼭 구경하고 값도 물어보겠다고
계획하고 갔다 하자. 그런데 시장에
가서 다른 일을 보다가 잊어버리고
그만이야 집에 와서 그 생각이 났다.
시장에 가서 눈으로는 그 물건을 봤
지만 ▲▲하지 않고 보았기에 뇌에
저장이 안 되어서 전혀 기억나지 않
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떤 사실을 두
고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
각하면서 봐야 깨달아지고 ▲에 저장
되고 녹화되는 것이다.

세상 말세와 나의 재림을 두고 일
어나는 세상의 징조도 너희가 생각하
면서 보아야 ‘지금 말세의 징조가 일
어나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징조구나.’ 확신하고 충격 받아 나 예수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예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나의 말을 배우지 않고 나에게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매일 말세의 징조와 상황을 보아도 뇌, 즉 마음에 남지 않아 모르는 것이다.

이 위급한 때, 지구 세상에 각종 징조들이 하루하루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천천히 오기 때문에 모른다. 또 빨리 와도 모르고, 크게 와서 눈으로 봐도 모른다. 이는 ▲▲에서 잊어버리고 보고 듣기 때문이다.

이는 비디오를 찍을 때 렌즈 뚜껑을 닫아 놓고 찍으면 아무것도 안 찍히는 것과 같고, 또 뚜껑을 열어 놓았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고 찍으면 아무리 찍어도 안 찍히는 것과 같다.

사람의 생각은 바로 내가 지금 말한 ▲▲▲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신과 같이 되는 방법은?

나의 생명의 말씀은 주일과 수요일에 잘 들어야 하며, 또 나를 중심한 집회 때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

내가 지금 한 말들을 잘 듣고 깨닫고 확신에 서서 행하면 신같이 된다. 나의 말을 생각하며 듣고, 마음에 새기고, 뇌에 저장하고, 확신 있게 행하면서 전하면 신이 된다.

예수님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할까?

늘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보기를 축복한다. 그래야 머리에 저장되어 늘 생각하게 된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나 예수가 너에게 가서 1:1로 말해도 모른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늘 핸드폰

을 켜 놓고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격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내가 찾을 때 나와 대화하게 된다.

누구든지 나를 생각하고 대하는 대로 역사한다.

무슨 생각을 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그날그날 너희 운명이 좌우된다.

이 급한 시대에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오는지 생각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여라. 그냥 생각만 하고 사는 자들은 내가 오고 가도 모르고 인생 끝나고 마는 자들이다.

환난 날을 예비하는 방법은 뭘까요?

환난 날에 나를 찾지 말고 지금 편안한 때 나를 찾아라. 그래야 환난 날에 내가 네 목소리를 듣고 낫설지 않아 대답하듯이 신랑이 신부의 음성을 듣고 바로 돕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나 예수를 찾고 부르고 사랑하며, 앞날을 생각하고 지금 삶의 차원을 높여 가며 그날을 피하는 삶을 살 때다. 생각하면서 내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각종 징조들을 보고 들으면 나의 때를 더욱 알게 되고 예비하게 된다.

나 예수를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나의 이때를 배우고 생각하는 너희가 되기를 축복한다. 너희들의 생각이 온전히 살아나 부활되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주 예수니라.

★ 읽은 날에는

아래의 표에 ○로 표시해 봅시다.

	수	목	금	토
말씀을 읽었습니다!				